

치 사

푸르른 생명의 기운이 힘차게 넘치는 봄날 한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불교음악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무대인 <제10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기북부음악예술제는 매년 그 지역의 살아 숨 쉬는 선인들의 정신과 유무형의 문화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한국정신문화사에 위대한 스승이시며, 일상의 삶마저 고통이었던 중생들에게 희망의 감로수를 적셔 주고자 민중의 삶을 떠나지 않으셨던 원효대사의 삶을 노래한다 하니 더욱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락과 희망을 전해준 원효대사의 무애행처럼, 현시대의 음악은 인류에게 편안과 즐거움을 주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해진다는 큰 가르침을 전해 줍니다. 오늘의 이 음성공양이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을 녹여주는 원용의 감로수가 되어 함께 노래하고,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야단법석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경기도북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정수스님과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장 대오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중스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성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와 오랜 시간 연습을 통해 음악제를 준비해 주신 300여명의 경기북부불교연합합창단과 지휘자, 반주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어린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불기2558년 4월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